

### 8일 한미 FTA 8차 협상

오는 8일부터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양측이 현실적 시한인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수용 불가한 요구는 접기로 공감대를 형성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이 받는 게 있으면 원가를 내줄 수 밖에 없어 우리측이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등 다른 민감품목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쌀은 개방 예외 전망 = 우리측은 현재 미국이 초민감 품목인 쌀을 건드리면 협상 자체를 꺾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쌀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미측에 이런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그동안 '예외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제시 하면서도 협상장에서는 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 쌀 개방 제외 공감

## 쇠고기·오렌지 등 민감품목 개방요구 가중될 듯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만 쌀도 언젠가는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협상 시한인 3월말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미측이 협상을 꺾 의사가 없다면 결국 쌀을 개방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조만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쌀 개방 제외는 '따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양측이 공감하고 있지만 합의는 한 상황은 아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쌀 제외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가 지연되는 것은 미국이 쇠고기 등 다른 품목의 개방 확대나 자국 섬유 시장 개방의 최소화 등 제3의 분야에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리셋'으로 쌀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이 전환점 = 농산물 분야 협상의 전환점은 5~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양측 수석대표를 맡은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은 그동안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쌀 등 민감 농산물 위주로 협상 타개책을 모색한다.

농림부의 공식 입장은 농산물을 섬유 등 공산품과 연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만일 이번 쌀 개방 예외 등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품목에서 일정 수준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235개가 남아있는 개방부가 확정되지 않은 농산물 '미정'(Undefined) 품목 중 '회생'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분야	미국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상용차	*한국의 예외를 기존 자동차 관세 개편 수준을 본 뒤 자동차 관세 철폐 수준 결정 *미 의회법, 한국 차 관세 즉시 철폐, 미국은 1년간 내내 철폐 주장
*2000년 이후에 즉시 관세철폐 / 관세율 5%로 관세철폐 / 통시기준 원산지 규정 준수 예외	섬유	*양측 세이프가드 인입/구회 수출금지제 다 강화해야
*비협상 조치 등 반입될 경우 개선해야	유류	*양측 조정해 하는 개선조치 수용 불가 요구
*자동차와 특수세 세율체계 개편	자동차	*이관세 철폐 일괄 철폐요구
*유류기간 실질적 면세 일부 수용	유류	*미국, 선진국과 연계한 최저가 보장요구
*미국 제철사 역설 결정관련 의회제기할지 논의가능	역학	*신약 경쟁성 평가 연기
*유지자-국가간 소송/미국대법원 결정 수용할지 논의가능	투자	*경제공시 확인요구
*한미FTA 자유무역 협정 체결/ 원산지 표시제도도 인정해야	서비스	*양측 동등성/시장 개방력 확대 *기존 동등성/시장 개방력 TV *미국은 서비스 무역
*일시 세이프가드 인정	공공서비스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시 80% 도입 *우회관행, 관세 수준 규제철폐
*신약 등 국제기준 합성약품은 인정	농업	*쇠고기 등 농산물 관세철폐/비협
*간접무역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통신	*개성공단 인정불가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해야		

특히 미국은 과거 최대의 수출품목이었던 쇠고기를 중심으로 오렌지, 돼지고기, 닭고기, 꿀, 감자, 낙농품, 양파, 사과, 인삼, 식용 콩 등에 대한 개방 요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하남산단의 고용위기



이종태  
경제부 차장

광주시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최근 내놓은 통계자료를 두고 경제계 일각에서 '고용없는 성장'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으로 하이테크 시대 전 지구촌 경제의 공통 고민이다.

하남산단도 입주업체수

와 매출액, 수출액 등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고용인원은 감소하는 현상이 마침내 벌어졌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하남산단의 입주업체는 933개 업체로, 전년 889개보다 44개나 늘었다. 이는 광주시 전체 제조업체 2천800개의 33.3%에 달한다.

생산액은 전년 1조9천9천여원에 비해 23% 늘어난 2조3천400억원, 수출액은 전년 7억6천100만불보다 13.9% 증가한 8억6천800만불이었다. 생산액은 광주시 전체의 56.7%, 수출액은 49%를 차지했다.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면서 공장조업률도 분위기를 닦았다. 지난해 3-4분기 77%에서 12월 말에는 78%로 1%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하남산단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상승세를 보였다. 고용인원은 줄어든다. 2005년 12월 2만6천447명에서 지난해 9월 2만5천300명, 다시 12월 2만4천91명으로 감소했다. 감소인원 중 남자는 1천699명, 여자는 657명에 달해 1년 새에 무려 2천356명(9%)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이와 관련, 하남산단 관리공단 관계자는 "일부 입주업체의 구조조정과 함께 오는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들이 비정규직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남산단의 '고용없는 성장'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더하다. 수년동안 입주업체들의 해외탈출이 지속됐는데다, 대기업의 수출부진으로 협력업체의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남아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우수 인재들은 서울·경기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고학력 청년실업률도 전국에서 최고를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고임금을 피해 용역업체 인력을 무더기로 고용하면서 전문기술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신제품 개발, 생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남산단 구하기'는 기업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산업수요와 성장산업의 수요인력을 고려한 교육체계 개편,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이동성 높이기 등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jtleee@kwangju.co.kr



"호국의 나이팅게일 되겠습니다" 5일 오후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윤종필 준장) 연병장에서 열린 제47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생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통일 "이면합의 없어... 오해불렀다면 유감"

### 한나라 "장관 자격상실... 사과·거취 결정해야"

#### 국회 통의통우 '이면합의'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의 5일 전체 회의에서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대북지원 '이면합의'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대북지원 관련 '발언 번복'을 문제 삼아 "이면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서 진상공개와 함께 이 장관의 '고해성사'를 요구한 반면, '정신적 여당'임을 자처하는 우리당은 "제1당인 한나라당이 증거도 없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남북이 '쌀 40만, 비료 30만'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이는 북한에서 요청한 양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게 이면합의의 반증 아니냐"면서 "이 장관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면합의'는 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다"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 최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면합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언론에서도 회담결과를 놓고 오락가락이라고 하는 등 비판일색인데 이 장관이 적극 해명하라"고 주문했다.

양당 의원들의 이 같은 공방은 '감정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움'으로 이어졌다. 우리당 의원들이 이면합의 주장에 관한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을 혹평하고 나서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이에 우리당 의원들이 재반박하면서 물고 물리는 설전이 벌어졌다.

최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논평에서(대북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대선국면에서 대가를 지급기로 한 것 아니냐', '이 장관이 김정일화(花)에 눈이 멀어 본분을 망각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수구적 색깔론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최성, 최재천, 민중서 의원 3명의 실명을 거론하

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자...통의통우를 어떻게 보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이 장관은 이면합의 논란에 대해 "이면합의는 없었다. 그럴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또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측만 갖고 '거짓말' 했다"고 말하지 말라. 어떻게 인적모독을 할 수 있느냐"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다만 "설명과정에서 매끄럽고 명쾌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며, 그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재정 장관 탈당신고서 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이후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적 정리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탈당신고서를 우리당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해 "오늘 당적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당에 전달했다"며 "양심으로서, 장관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초당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함에 자신의 세포를 보전하셨다가  
합성혈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력입니다.

다목적 치료유닛 | 한국을 가변온도형 정수기 | 077-3475

아이들의 행복은 SASA BEMIN